

3월

본문묵상-마태복음



-큐티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





3월 첫째주  
2020년 3월 1일 ~ 7일



# GOD'S TIME 1

##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5:1-12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이 있나요? (10점)

“...  가 그들의 것이다.”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넣으세요. (12점)

“너희가 나 때문에 을 당하고, 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을 받으면, 이 있다..”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복 중에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듣거나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세요.

with  
결심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약속받는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5:13-20 “세상의 빛과 소금”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행실 :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with  
관찰

1.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말을 써넣으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이다.   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넣으세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with  
생각

소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짜게 하는 것보다 맛을 잃지 않는 것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한 소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예요.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더 멀리 더 넓게 비출 수 있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가만히 있어도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빛이 가만히 있어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5:21-32 “먼저 화해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하여라 ...”

2.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 도중에 얼른 그와   하도록 하여라 ...”

with  
생각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 나면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그러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달려가 화목해야 해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며 화해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먼저 가서 화해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친구와 다툼 일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5:33-48 “원수를 사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올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세리: 세금을 걷는 관리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44절)

“너희 원수를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여라.”

2.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그만큼 한다고 했나요? (46절)

人 2

with  
생각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사랑  
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박해했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께서는 세리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





3월 둘째주  
2020년 3월 8일~14일



#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6:1-4 “이웃을 도와줘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선 :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1절)

“너희는 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2. 예수님께서 자선을 베풀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하셨나요?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이 하는 일을 이  
모르게 하여”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의무 중 하나인 자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선을 베풀 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칭찬을  
받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칭찬 받기 위해 하는 자선은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돕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돕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6:5-15 “진심이 담긴 기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위선자: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5절)

○ 人 ズ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8절)

“...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하세요. 그들의 기도는 허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담겨 있지 않아요.

with  
결심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해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간절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6:16-18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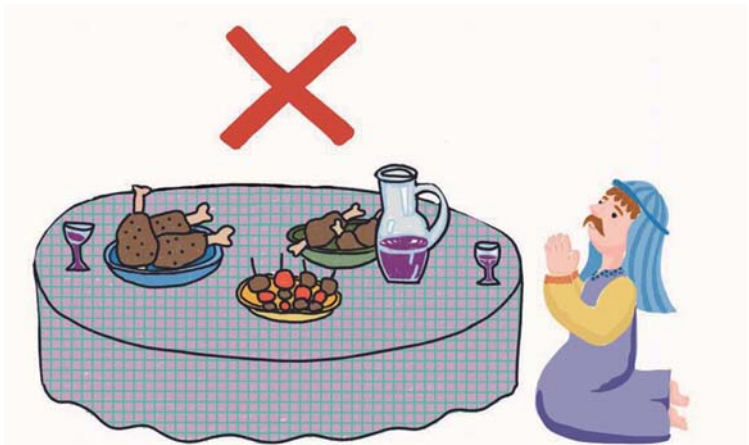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18.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16절)

“...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을  
한다.”

2.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누가 보시게 하라고 하셨나요? (18절)

## ○ 버 스 (ㅎ ㄴ ㄴ)

with  
생각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위선자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금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with  
결심

우리는 금식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6:19-34 “하늘에 보물을 쌓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19.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 20.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 21.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셨나요? (19-20절)

ㅎ L

2. 몸에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2-23절)

L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말씀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도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with  
결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은 썩이 먹고 녹이 슬어서 결국 사라지고 말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보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마태복음 18장 24-35절 (새번역성경) / Matthew 18:24-35 (NIRV)

Forgiveness—Deciding that someone who has wronged you doesn't have to pay.  
용서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마음 먹는 것.

24.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목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24. As the king began to do it, a man who owed him 10,000 bags of gold was brought to him.
25. The man was not able to pay. So his master gave an order. The man, his wife, his children, and all he owned had to be sold to pay back what he owed.
26. “Then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Give me time,’ he begged. ‘I’ll pay everything back.’
27. His master felt sorry for him. He forgave him what he owed and let him go.
28. “But then that servant went out and found one of the other servants who owed him 100 silver coins.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Pay back what you owe me!’ he said.
29. “The other servant fell on his knees. ‘Give me time,’ he begged him. ‘I’ll pay it back.’
30. “But the first servant refused. Instead, he went and had the man thrown into prison. The man would be held there until he could pay back what he owed.
31. The other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and were very angry. They went and told their master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32. “Then the master called the first servant in. ‘You evil servant,’ he said. ‘I forgave all that you owed me because you begged me to.
33. Shouldn’t you have had **mercy** on the other servant just as I had mercy on you?’
34. In anger his master handed him over to the jailers. He would be punished until he paid back everything he owed.
35. “This is how my Father in heaven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 Vocabulary

Mercy- 자비

Treat- 대우하다

Unless- ~하지 않으면

# ENGLISH BIBLE STUDY



##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33 'Shouldn't you have had m\_\_\_\_\_ on the other servant just as I had mercy on you?'

35 "This is how my Father in heaven will t\_\_\_\_\_ each of you u\_\_\_\_\_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 Interpretation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의 죄를 일곱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은 아주 관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구들의 죄를 일곱 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칠십 번 굽히기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교훈을 주셨어요. 한 종이 왕에게 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종은 왕에게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를 안타깝게 여긴 왕은 결국 그의 빚을 탕감해주었어요. 그런데 용서 받은 종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어요. 종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도록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이 이야기의 악한 종처럼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Application

It is hard to forgive others. When others do wrong things to us, we naturally get angry and we say bad things to them. But Jesus is telling us to forgive other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y do wrong things to us. And through the story of the bad servant, he reminds us how merciful God was to us, in the first place. And because we have received such forgiveness, we have an obligation to forgive others. Whenever someone does something that makes us angry, we have to remember this story and pray so that Jesus gives us the power to forgive our friends.

남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를 내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쁜 종의 예시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자비를 얻었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친구들을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 Let's memorize

Let's memorize Matthew 18:35, NIRV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This is how my Father in heaven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 Matthew 18:35, NIRV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





3월 셋째주  
2020년 3월 15일~21일



#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7:1-6 “나의 허물을 먼저 보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2.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되질** : 시장에서 곡물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다.

**티** : 작은 나무, 작은 작대기

**들보** : 기둥, 서까래와 같은 나무



with  
관찰

1.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넣으세요.(1-2절)

“너희가   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하는 그   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실 것이요.”

2.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각각 누구에게 주지도 말고 던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6절)

“거룩한 것을  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앞에 던지지 말아라”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 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있는 커다란 잘못(들보)은 보지 못한 채 이웃의 작은 허물(티)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평가하기보다 우선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with  
결심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2절)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한 것을 꼬집어 내거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싶을 때에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헐뜯는 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도 똑같이 되돌아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치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 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에는 ‘혹시 나에게도 허물이 없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남의 허물과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7:7-12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7.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8.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9.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7절)

“□□□□,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

□□□□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 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 하여라. 이것이 □□□□ 과 □□□□ □□□□ 의 본뜻이다.”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마다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땅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구분 해서 주시지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 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해요.

with  
결심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 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니깐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라는 생각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나의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7:13-29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16.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22.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23.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24.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25.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26.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음 중,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시켜보세요.
- |              |                             |
|--------------|-----------------------------|
| • 멸망으로 이끄는 문 | • 집이 무너졌다.                  |
| • 반석위에 세운 집  | • 문이 좁고, 길이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
| • 생명으로 이끄는 문 | •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
| • 모래위에 세운 집  | •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

2.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20점)

with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 속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님'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도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시간에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대로 일주일동안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버리게 되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8:1-13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6.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9.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 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한 곳은 어디인가요?(5절)

□ □ □ □

2.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셨다.(6-7절)
- ②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8절)
- ③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셨다.(10절)
- ④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종을 낮게 해주셨다.(13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시자, 로마군 지휘관(백부장)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크게 놀라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낫게 될 이유를 설명한 것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with  
결심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군 지휘관이었지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만으로도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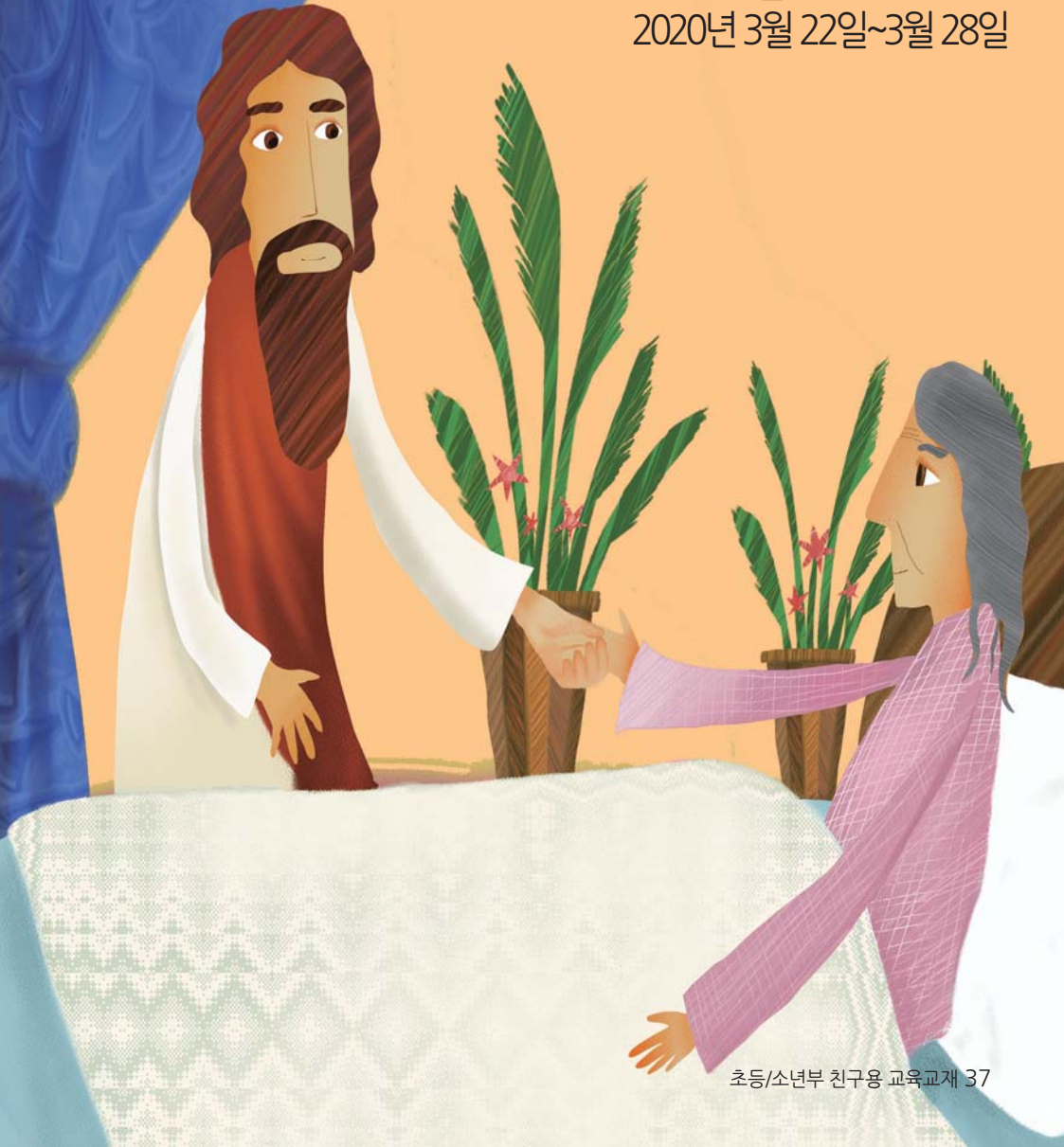
\_\_\_\_\_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





3월 넷째 주  
2020년 3월 22일~3월 28일



# GOD'S TIME 1

##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8:14-17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15.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지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열병:** 열이 몹시 오르고 심하게 앓는 병

**시중:** 옆에서 직접 보살 피거나 심부름을 함

**병약함:**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짐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무엇이 떠나갔나요? (15절)

“...이 떠나가고...”

2.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언자 누구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17절)

예언자

with  
생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불덩이  
같이 나고 아파서 누워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  
지고 낮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 괴로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예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병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진짜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프고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 받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8:18-22 “예수님을 따르는 삶”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1.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

• **장례**: 사람이 죽고 나면 치르는 예식



with  
관찰

1.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나요? (19절)

2.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에게 인자는 무엇을 둘 곳이 없다고 하였나요?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둘 곳이 없다.”

with  
생각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때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  
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  
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는 지금은 갈 수가 없고,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놓고 따라가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마태복음 8:23-27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24.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27.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풍랑:**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나는 물결

**복종:**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말을 그대로 따르는 행동



with  
관찰

1.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뒤집히려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24절)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셨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꾸짖으셨나요?

“..일어나  과  를 꾸짖으시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겁을 먹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왜 믿음 없이 무서워하냐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with  
결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잔잔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

with  
말씀

마태복음 8:28-34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8.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30.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 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 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34.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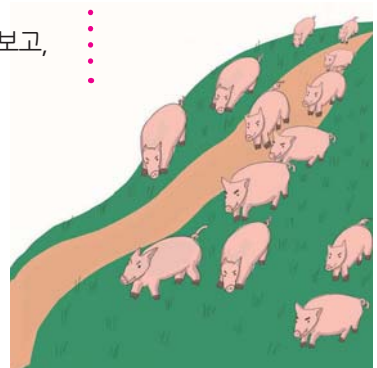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가다라** : 성을 둘렀다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데가볼리의 한 지역 지역 이름, '거라사'라고 하기도 함

간청 : 간절히 부탁함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2. 귀신들은 예수님께 어떤 동물의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나요? (31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귀신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귀신들린 사람들은 너무나 사납고 무서워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왜 온 것이죠? 우리를 떠나주세요.” 그 근처에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어요.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해주셨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귀신들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 빠져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돼지의 주인들은 돼지들이 다 죽게 되어서,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돼지들을 아까워했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보다 돼지들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





3월 다섯째주  
2020년 3월 29일 ~ 4월 4일



#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9:1-13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세리:** 세금을 받는 관리 (당 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는 많은 이들에게 멸시를 받음)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나요? (9절)

세리

2.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하였나요? (11절)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와  과 어울려서  을 드시오”

with  
생각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그들과는 결코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돌아오도록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하며 응답할게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2

## 다섯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9:14-26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0.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텐데!" 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가 나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혈루증**: 피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병 (당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짐)



with  
관찰

1.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아픈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떤 행동을 했나요? (20절)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에 을 대었다.”

2.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21절)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을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with  
생각

예수님은 죽은 아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바로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12년 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with  
결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오랜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은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나의 기도 :

---

---

---

---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마태복음 9:27-38 “영적인 눈, 믿음의 눈”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 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 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두 명의 눈 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무엇이라 말했나요? (27절)

... 눈 먼 사람들이 “의 자손이여, 우리를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2. 눈 먼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에 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대로 되어라.”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린 후, 길을 가고 계셨어요. 두 명의 눈 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고쳐 주실 것을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즉시 “예! 주님!”하고 대답했지요. 예수님은 믿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눈 멀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두 명의 눈 먼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게요.

나의 기도 :

---

---

---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마태복음 10:1-15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4.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5. 예수께서 이들 열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7.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제어 : 마음대로 다룸

권능 : 권세와 능력

고을 : 성읍, 마을

with  
관찰

1.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을 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하셨다.

2. 아래에 열두 사도(제자)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2-4절)

with  
생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 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열두 제자를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사역을 위해 보냄)하기 전,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전도의 지침도 알려주셨어요.

with  
결심

열두 제자가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열두 제자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 Morning Time

##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 말씀 <마태복음 16장 13-20절, 새번역>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8.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잠에서 깬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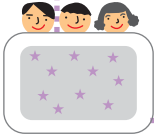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OO(이)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란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OO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기억하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찬양 &lt;날 만드심이라, 파이디온&gt;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을/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읽은/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  
 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  
 셧어요.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OO(이)란다.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FUN FUN PLAY

## 색 칠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래의 그림에 색칠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John 3:16)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 네모 칸에 적어보세요.



# 문 장 완 성 하 기

하트 안에 있는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 밑에 있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값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을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레2-2:21)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숫 양 한마리와  
속죄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 양 한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마리와(민6:14)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삼상13:9)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 \_\_\_\_\_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_\_\_\_\_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요한 일서 4장 10절 -

3월 QT +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